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'11년 4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신산업표준과 안종일 과장, 오광해 연구관(02-509-7295)	

스마트그리드 EU시장, 표준으로 민간협력 채널구축

– 국가 표준코디네이터 첫 활동으로 獨·佛 협력 시너지 효과 –

□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유럽상공회의소(EUCCK)의 적극적 협조하에 EU국가와 우리나라 기업의 각 특성에 맞는 **민간 중심의 맞춤형 기술 표준협력**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국제 협력의 특징은

① 정부차원의 선언적인 국제 협력이 아닌, **기업이 주체**가 되는 민간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으며

② 이를 위해 현장감이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인적, 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**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첫 번째 활동**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점이다.

※ 국가표준코디네이터 : R&D 결과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우리기술의 국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표준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율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활동에 전력하도록 정부가 임명한 민간전문가 (스마트그리드 : 한국전기연구원 김대경 센터장)

○ 지난 4월 초 새롭게 임명된 스마트그리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는 포스코 ICT, 한국전력 등 15명의 기업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,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측업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표준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.

□ (표준대표기관 협력)민간 기업들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양국 정부 및 관련 기관간에 다양한 협의가 이뤄졌다.

○ **독일(전기기술위원회, DKE)**: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로드맵,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 충전 인프라, 정보보안 등 4대 분야에 대한 협력

○ **프랑스(전기기술연합, UTE)**: 스마트미터의 표준·보급 사업 협력

○ 글로벌 표준화 조율과 상호협조를 위한 **韓·美·EU간 「표준 코디네이터 협력체」** 구성 합의

□ (민간협력) 韓, 獨, 佛 스마트그리드 업계는 상호간의 강점분야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채널 구축을 이루었다

○ **한국전력**은 佛전력회사(EDF)와 「스마트미터 보급사업」, **포스코 ICT**는 佛Schneider와 「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」에 관한 MoU 추진,

○ **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**는 佛전기통신제어협회(GIMENLEC)와 「기술표준 정보교류 지원 및 협력사업 개발 등」에 관한 MoU 추진

○ 獨정보통신연구소(OFFIS)는 **한국의 SG 정보통신·보안 분야와 국제 공동연구**를 제안하였고,

○ 프랑스는 자국 업계 대표단을 구성하여 5월말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관련기업과 구체적 기술협력 논의 희망

□ 이번 협력출장에 대한 평가로, 스마트그리드 시장·기술·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EU 주요 기업과의 협력 채널구축 지원에 대한 정부노력에 국내 관련업계는 호의적 입장이며,

○ 獨, 佛업계는 IT 강국이고 신규산업 발굴에 적극적인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환영하면서, 구체적 비즈니스협력으로 발전하기를 크게 기대

○ 한편, 기술표준원은 향후 국내 관련 업계를 위해 국가 표준코디네이터의 풍부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주요시장으로 부각된 중국, 일본 등과의 전략적 기술표준 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